



산업부, 업계와 태양광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논의

- 태양광 셀·모듈, 인버터 제조기업 건의사항 청취
- 연내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방안' 발표 계획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는 8월 1일(금)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호현 제2차관 주재로 '태양광 제조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와 국내외 산업 동향을 공유하고,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오늘 간담회에는 한화솔루션, HD현대에너지솔루션, OCI파워, 다쓰테크 등 총 8개 태양광 제조기업 관계자와 한국태양광산업협회,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참석 기업들은 △공공사업에 국산 제품 우선 사용, △차세대 기술(탠덤셀) 개발 예산 확대, △국내 생산 제품 대상 세제 혜택 및 보조금 지원, △탄소검증제 강화 및 저탄소 제품 인센티브 확대 등을 건의했다.

정부는 저탄소 제품을 우대하는 탄소인증제가 적용되는 재생에너지 예산을 확대하여 정부 지원이 친환경 제품 구매로 연결되도록 하고, R&D 지원을 통해 태양광 핵심 부품, 기자재의 고효율·고신뢰성 프리미엄 제품 개발과 상용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새로운 안보 이슈인 인버터의 보안성 강화를 위해 인증을 고도화하고 위험성을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호현 차관은 “성공적인 재생에너지 전환은 보급과 성장이라는 두 개의 바퀴로 함께 굴러갈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며, “정부가 안정적인 공공 수요를 창출할 계획인 바, 기업도 정부를 믿고 기술 개발과 국내 공급망 강화에 대한 투자를 지속해주길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과 업계 의견수렴, 전문가 검토를 거쳐 연내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	재생에너지정책관	책임자	과 장 박성우(044-203-5370)
	재생에너지산업과	담당자	사무관 위성원(044-203-5372)

참고

태양광 제조기업 간담회 개요

□ 회의 개요

- (일시·장소) '25.8.1(금) 15:00~16:30, 서울 대한상의 EC룸(1F)
- (참석 대상) 산업부(2차관), 제조기업*(8개社), 유관기관 등 약 15명
 - * (셀·모듈) 한화솔루션, 현대엔솔 등 6개사, (인버터) OCI파워, 다쓰테크 등 2개사
- (주요 내용) ①국내·외 태양광 산업 동향 공유, ②태양광 산업·기업 지원방안 논의, ③기업별 애로·건의사항 질의응답

□ 세부 일정 (90') ※ 모두발언까지 공개

시 간		내 용	비고
15:00~15:05	(5')	▪ 모두 발언	산업부
15:05~15:15	(10')	▪ 글로벌 태양광 산업·정책 동향	대외경제연구원
15:15~15:25	(10')	▪ 국내 태양광 산업동향 브리핑	태양광산업협회
15:25~16:25	(60')	▪ 애로·건의 사항 청취 및 자유토론	기업⇄산업부
16:25~15:30	(5')	▪ 마무리 발언 및 폐회	산업부